

일거수일투족 보고 듣고 하는 것도 다 놓으세요!

21면에서 계속

음을 내지 않았죠.
▲질문자(여): 아무리 제가 몸이 피곤하더라도 이렇게 절에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참...
▲사회자: 결혼시켜달라는 말이죠?
▲스님: 그거는요, 본인이 '내가 하고 싶은 때' 딱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질문자(여): 그렇게 되겠습니까?
▲스님: 네. (대중 웃음) 그것이, 그것이 법이니깐요.
▲질문자(여): 네. 하도 부도된 도로로써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스님을 보였습니다.
▲스님: 답답해하실 게 없어요. 그냥 딱 놔버리면 그냥 배고프면 먹고 톱마러우면 톱 누고 자고 싶으면 잘 겁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게 불등고 놀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손들이 제대로 될 게 못 된단 말입니다. (대중 박수)

▲질문자(여): 감사합니다. 스님, 저는 질문드리러 온 게 아니고요. 저희 아들과 동시에 같이 체험한 걸 말씀 올리려 왔습니다. 제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요번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와서 스님께 말씀 올리려고 했는데, 아랫밭에 공부하고 오다가 계단에서 끌려서 발을 찌어가지고 못 왔거든요. 그래서 관법(觀法) 노트를 썼는데요. 스님께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구지원에 다니는 중학교 3학년 구본철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큰 사건은 처음이며 주인공이 제일 고맙고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큰 경험담도 체험했고요. 그러나 이것은 중학생으로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도록 하려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글을 씁니다.

때는 5월 초, 저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무심결에 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거짓말로 나는 "차를 잘 탄다. 내 경력이 일 년이 다 되어 가는데."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니 친구들은 정말로 믿고 언제 한번 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농담인 줄 알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하였습니다. 5월 초 어느 토요일 날, 진짜로 아이들은 독서실 간다며 핑계를 대고 새벽 한 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몰고 나오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래 천성이 좀 겁이 없기 때문에 얼마 몰래 키를 돌려내어 집을 빠져 나왔습니다. 막상 키를 갖고 나오니까 다리가 후들거려 도저히 차 안에 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친구들을 부르고 차에 태워서 운전대 한 번 잡지 못한 실력으로 막상 출발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토매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초보라서 잘 못하겠는 겁니다. 엄격히 말해서 초보보다 더 낮은, 면허증도 없고 운전대에 손도 한 번 안 올려본 내가 그래도 출발하였더니 막상 그런 생각을 하니 옹기가 붙어 대구를 3시간 동안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을

고 이리기를, 매주 공휴일 새벽마다 계속 차를 몰고 다녀왔습니다. 심지어는 구미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갔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간지 붓지 않은 이상 이 같은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몰고 다녔더니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동화 속의 주인공인 줄 작각할 정도로 심하였습니다.

계속 그러기를 한 달, 때는 6월 5일, 학교에서 제 친구 중에 나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은 즉시 친구에게 두 차로 구미까지 가자고 제안을 하니, 즉시 좋다고 하며 새벽 2시까지 앞산 주차장으로 오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저는 차를 몰래 몰고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을 태우고 주차장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도착하니 과연 프린트 신형한 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트라고요. 즉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앞산에서 갈 테니까 주월하

그대로 허공에
꽃이 피어서 만발했으니
이 도리를 알아서
열매를 맺게 하라

지 말고 따라와라. 길은 내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출발하였습니다. 신선 대로를 진입하여 약 시속 100km를 밟으며 가고 있었습니다. 신선대로는 말 그대로 큰 도로이기 때문에 위험도 높고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긴 길이였기에 저는 그대로 달렸던 겁니다. 가다 보면 북대구 인터체인지가 나오는데 그러고 가면 다른 대가 나오기 때문에 직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로 가려다 내 친구가 "니 어디로 가노?"라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틀렸습니다. 사고가 날 뻔 하였지요.

그런데 그 날은 이상하게 100km만 밟아도 차가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구미 갈 때는 150km를 밟아도 아무 이상 없던 차가 그날따라 이상하였습니 다. 미리 주인공이 암시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습에 이끌려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렸습니 다. 그런데 제 뒤의 차가 쌍라이트를 켜는 것이었습니다. 제 친구 자였습니다. 저는 왜 쌍라이트를 켜는 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까 다른 데로 빠져리다 갑자기 들어온 것을 보고 쌍라이트를 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 깜빡이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런데 문제점이 제 친구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어떠한 생각으로 불을 켜느냐 하면 '너희 차는 소형차고 인구가 많으니까 내 차에 태워라. 따라서 내가 앞질러 간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또 제가 비상 깜빡이로 대답을 준 것을 어떻게 했었냐 하면 '알았다. 날 앞질러 가라.'라는 뜻으로 들었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 120km로 가고 있었고 제 친구는 질 따라 잡는다고 140km로 갔습니 다. 저는 물론 주월하는지도 몰랐죠. 옆에 번쩍거리더니 갑자기 핸들을 꺾어 제 차 앞부분을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깽 소리가 나는 동시에 중앙분리대를 박고 제 친구 차가 위로 봉 뚫었습니다. 쿵하고 내려올과 동시에 차가 뒤굴러 갔습니다. 그전에 제 차 안에 탄 사람은 모두 안전벨트를 해서 밖으로 날아떨어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뒤굴렀을 때 찌그러져서 안전벨트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다 주인공의 덕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 차가 제 친구 차를 밀고 나갈 당시에, 참나에 수역만 생각이 다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게 '주인공!'이란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막상 세우고 나서 생각나는 게 친구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차는 뒤집어져 있고 반은 부서져 있었으니 어떻게 저기서 살아남았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뒤집어진 차에서 뒷정문을 깨고 절뚝거리며 3명이 나오는데 그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자리는 피하자고 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전화기 있는 데까지 뛰어가는 데 계속 스님 부르고 주인공을 부르며 갔습니다. '주인공! 주인공!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백 번도 더 관(觀)하며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전화를 해서 어머니께 현장으로 오시라고 연락을 해놓고 우리끼리 현장으로 달려가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결국 들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거의 절망적으로 스님을 불렀습니다. 양쪽 부모님이 일을 보시는데 경찰관 아저씨가 친절하게 내 일처럼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면서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다 주인공의 나뭇잎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은 좋게 일단락되었습니다. 사고 난 이튿날 주인공에게 '주인공, 감사해! 스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외쳤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인공을 더욱 더 믿고 관(觀)하게 되었으며 차만 보면 스름치르는 것도 생겼습니 다. 해결사 주인공, 해결사 주인공을 만나는 만큼 더 크게 해결해주는 주인공 더욱더 믿고 따를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철 올림. (대중 박수)

그런데 스님, 시간이 없는데 잠깐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이 사건이 되고 해결되기까지 3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이 몰 흐르듯이 해결이 되고 아침에 지원 스님께 전화드리고 나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생각이 났거든요. 두

달 전인가 한 달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법회에서 스님께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이 도리를 물려주는 것이 세세생생 건지는 것'이라고 법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가 부모로서 저 자식한테 어떤 걸 해줄까 마음이 막 올라왔고,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저축된 것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예금한 거하고 또 보험에서 축적금으로 나온 거하고 아들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예금한 것이 있었는데, 보이는 통장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無)의 세계에다가 아들 앞으로 저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스님께 그 보시금을 올리려고 가져가면서 주인공한테 관하기를 '주인공, 이 돈을 올리는 자리도 받는 자리도 한마음 주인공이고 나는 철저히기 심부름만 할 뿐이다.'라고 관하고는 스님 방에 들어가서는 스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올

제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가
제 나무에서 무르익어서
만 가지 맛이 날것입니다

렸습니다. "스님, 저는 한 치 앞도 못 보고 삽니다. 지금 당장 이후에 뭐가 풀려나올지도 저는 모릅니다. 이 돈은 본월이 돈이니깐 본월이 앞으로 올리니 스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한생각이 나면서 제 주인 자리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 저희들이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오직 주인공만 믿는 이 마음만 놓치지 않고 간다면 보이지 않는 부처님 자리에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스님 이전에도 부처님을 계셨고 스님 이후에도 계시겠지만, 살아있는 부처님께 인연 되어 이 도리 공부하고 감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스님: (환장하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그런데 누구나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연하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거저도 없고, 우연하고 없고 꼭 내가 한 거만큼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저분이 하신 말씀과 같이 이것도 옛날에 이런 얘기를 내가 가끔 했죠. 양 무제가 달마 대사한테 물기를 "이렇게 많은 시주를 하고 절을 지어드리고 스님들의 옷을 해드리고 밥을 해드리고 이렇게 많은 시주를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덕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알답겠어요. 그랬듯이 우리가 이 마음의 도리하고 연관이 되지 않는다면 거저는 헛 시주입니다. 헛 시주!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없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분이 '나는 있는 통장보다도 없는 통장을 위해서, 난 그 애한테 없는 통장에 예금을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여기다가 놔도 또 지원의 스님한테다 줘도 그스님 자체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스님 자체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준 것도 아니게 됩니다. 왜냐 자기 거를 자기가 한 거지, 자기네 그 아들한테로 무심통장을 한 거지 그건 개별적인 우리들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주를 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심코 받는다면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를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스님네들에게 준 게 아니고 불사를 하라고 했어도 그런 것으로 자기 불사를 하기 위해서 준 거지, 이 중들의 불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께서는 양 무제더러 내가 이 시주를 하고, 내가 시주한 거는 대가를 바라라고 또 시주를 내가 했다고 만백성들한테 풍기고 그러고 했으니 무슨 시주가 공덕이 될 게 있는냐 이거야. 그러니 하나도 한 게 없다 이거야.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시주를 해도 누가 요만한 거 하나 거저 먹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우리 한마을선원의 식구들은 말입니다. 거저 먹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두 자기네들 자기 밥을 먹고 사는 스님네들이라 말입니다. 왜 그러면 남들이 갖다 주는 밥 먹고선 왜 자기 밥들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자기 할 일을 다 잘하고 가니깐 자기 할 일을 하고 가니깐 그 밥을 자기가 내려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 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눈을 휘번 떠거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 차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합니까? 근중한 내 부모가 내 종자를 줬고 그 종자로 인해서 몸을 탄생을 시켰는데, 그것도 그 몸을 탄생을 시킨 것도 제대로 못가지고 갈 걸, 영원히 가지고 못 있을 걸 왜 그거를 짐을 저요? 내가 왜 짐을 집니까? 여러분의 짐을 왜 내가 집니까? 그냥 그거를 받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짐을 떨어드리기 위해서 쓰는 것뿐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다 된 겁니까?

▲대중: 네.
▲스님: 그러나 이 시간에도 다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 여러 마디 중에 그대도 어떤가가 될 한 가지라도 있겠죠. 그러니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 시면서 무조건 자기를 믿으세요. 못났든 잘났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잘살든 못살든 자기 주처만이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남의 부모가 잘나고 부자라고 해서 내 부모를 바꿀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95년 6월 10일

휴가철에 권하는 화제의 신간

休

삶의 쉽표, 명상 책도시락을 선물하세요.



고마워요 자비명상

마가 스님 · 이주영 지음 | 신국판 | 값 12,000원

자비명상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일체 모든 생명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확장시키고 삶을 긍정적인 자세로 변화시킨다. 자비명상은 고통받는 마음을 치료하는 자기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마음의 괴로움과 혼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1부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하여, 2부 프로그램의 토대, 3부 진행자를 위한 안내, 부록 등 자비명상 프로그램을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밝혀 놓아 책을 읽으면서 명상을 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다. 이 책은 개인의 수행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화합, 직장에서 타인과의 관계 등을 원만하게 해나가는 방법들이 실려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긍정성을 발견하고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힘, 자비심을 키우는 명상프로그램이 가득 차 있어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밝아지고 자비로워진다.

송파구 석촌동 165-14, 전화 (02)420-3200, http://www.bulkwang.or.kr

마가 스님과 함께하는 전국 순회 강연 일정

마가 스님은 '고마워요 자비명상' 출간을 계기로 전국 순회 강연을 갖는다. 청중의 특성에 따라 부자비명상, 자녀교육을 위한 자비명상, 직장인을 위한 자비명상, 교사를 위한 자비명상 등 맞춤형 자비명상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년간의 수행 지도와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강사로 뽑힌 스님의 명쾌한 강연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하게 쌓인 응어리가 풀리고 가슴이 환히 열릴 것이다. 또한 자기 안에 깊숙이 내재된 긍정성과 자산을 사랑하는 법,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을 기르는 법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는 스님의 강연은 삶에 행복한 변화를 가져 오기에 충분하다.

- 광주 원각사 (7. 16 오전 11시, 062-224-5289)
- 대전 백제불교대학 (7. 17 저녁 7시, 042-471-5547)
- 대전 보현불교대학 (7. 24 저녁 7시 042-624-6555)
- 울산 불명사 (7. 28 오전 10시, 052-251-4602)
- 부산 출법사 (7. 28 저녁 7시, 051-508-0345)
- 용인 행복선원 (8. 8 오후 2시 031-286-3663)
- 울주 관자대법원 (8. 11 낮 12시)
- 인천 부부나리교원 (8. 12 오전 11시, 032-577-5108)
- 춘천 불명사 (8. 13 저녁 7시, 033-244-6449)
- 대구 권유사 한국(영남) 불교대학 (8. 18 오전 10시, 053-474-8228)
- 전주 전북불교대학 (8. 19 오전 10시, 063-226-7878)
- 서울 불명사 (8. 26 오전 10시 30분, 02-413-6060)
- 구미 도리사 (9. 1~2, 14~16, 054-474-3737)
- 아산 불미유치원 (9. 5 저녁 6시 30분 041-545-9581)
- 천안 부부나리유치원 (9. 19 저녁 7시 041-578-0360)

불광출판사에서 펴낸 마음을 밝히는 명상 책들

- 볼·여름·가을·겨울**
 - 광덕 스님 명상언어집(전4권)
 - 4·6판 | 4권 1집 | 값 20,000원
- 마음공부 이야기**
 - 범상 지음
 - 4·6판 | 278면 | 값 6,000원
-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 혜봉 지음
 - 신국판 | 359면 | 값 9,000원
- 5박 6일 명상 체험기**
 - 김남선 지음
 - 신국판 | 312면 | 값 8,500원
- 청소년을 위한 명상 이야기**
 - 최시선 지음
 - 신국판 | 440면 | 값 9,500원
- 위짜나나, 1,2**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
 - 김열린 지음
 - 신국판 | 1권 352면 · 2권 544면 | 각각 값 12,000 · 15,000원